『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권8, 08:22-10:11을 중심으로-

서민욱**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mmi)의 출현하게 된 배경과 전체 구조를 간략히 언급하고 점토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8의 08:22-10:11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은 『유가사지론』 권8의 일부(08:22-10:11)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1)]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煩惱雜染'에 대한 9가지 연고 중 '煩惱過失'에 관한 부분과 '業雜染'에 대한 9가지 연고 중 '業自性', '業分別'에 관한 부분이다.

<일러두기>

A: 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를 판독한 결과

B: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 표시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4년 3월 27일, 4월 24일)에서 강독한 요지문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한 내용은 주로 강독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다.

** 가톨릭대학교 강사

1) 이 글에서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단점의 추정 점도는 다음과 같다.

C: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

D: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 국어로 축자역한 결과

E: 해당 부분의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

<유가08 08:22-23>

A: 煩惱過患[51(·)]者[23~33(·)]當[32~42(·)]知[51(·)]諸煩惱[44(·)]有无量過患[33~43(/),+11(·)]

B: 煩惱過患[ㅣ]者[ㅅㄱ]當[ㅅ]知[ㅣ]諸煩惱[十]有无量過患[ㅅㄱ 卬, 丁]

C: 煩惱過患(ㅂ)ㅣ{者}(ㅅㄱ)ㅅㄱ 當ㅅ 知(ㅋ)ㅣ 諸 煩惱十 无量過患 有ㅅㄱ 卬丁

D: 煩惱過患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煩惱에 无量過患이 있는 줄을.

E: 번뇌의 허물[煩惱過患]이라 함은, 모든 번뇌에는 한량없는 허물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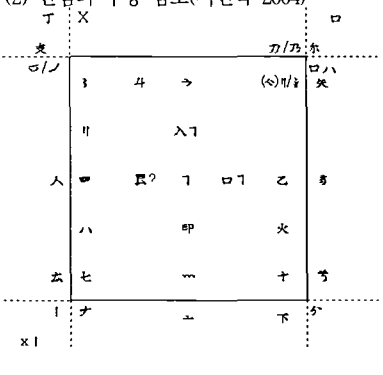
<유가08 09:01-02>

A: 謂煩惱[22~32(·)?]起[15~24(/),42(·)]時[53(·),44(·)]先[54(·)]惱亂

(1) 좌표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2) 단점의 추정 점도(서민욱 2004)



[2자합부-역독선]其心[34(·),24(·),55(·)]次[23(·)]於所緣[=44(·)?]發起[2자합부-역독선]顚倒[34(·),55(·)]

B: 謂煩惱[ㅣ]起[ㅅ令,ㄴ]時[ㅓ,十]先[下]惱亂其心[乙,ᄉㅣ,ㅁ]次[ㅋ]於所緣[十]發起顚倒[乙,ㅁ]

C: 謂 煩惱ㅣ 起ㅅ令ㄴ 時ㅓ十 先下 其 心乙 惱亂ᄉㅣㅁ[2] 次ㅋ {於}所緣十 顚倒乙 發起(ㅅ)ㅁ

D: 즉 煩惱가 일어나는 때에 먼저 그 마음을 惱亂시키며, 다음으로 所緣에 대해서 顚倒를 일으키며,

E: 번뇌가 일어날 때에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다음에는 반연하는 바에 뒤바뀜을 일으키어

<유가08 09:02-04>

A: 令諸隨眠[34(·)?,구결자(乙)]皆[42(·)]得[15(·)]堅固[24(·),55(·)]令等流行[34(·)]相續[45(·)]而[43(·)]轉[=24(·)#23~24(·),55(·)]能[55(·)]引自害[34(·),55(·)]能[55(·)?]引他害[34(·),55(·)]能[55(·)]引俱害[34(·),55(·)]

B: 令諸隨眠[乙]皆[ㄴ]得[ㅈ]堅固[ㅣ,ㅁ]令等流行[乙]相續[ㅎ]而[ㅱ]轉[ㅣ,ㅁ]能[ㅁ]引自害[乙,ㅁ]能[ㅁ]引他害[乙,ㅁ]能[ㅁ]引俱害[乙,ㅁ]

C: 諸 隨眠乙 皆ㄴ 得ㅈ 堅固(ㅅ){令}ㅣㅁ 等流行乙 相續ㅎ 而ㅱ 轉(ㅅ){令}ㅣㅁ 能ㅁ 自害乙 引ㅁ 能ㅁ 他害乙 引ㅁ 能ㅁ 俱害

2) 자토 『유가사지론』 권20에서는 사동 구문에서 한문 원문에 '令'이 나오면 '-ㅅ{令}ㅣ-'와 같이 현토되고, 나오지 않으면 '-ᄉㅣ-'와 같이 현토된다. 점토 『유가사지론』 권5·8에서는 사동 구문에서 한문 원문에 '令'이 나오나 나오지 않으나 24(·)이 기입되어 있다. 자토 『유가사지론』 권20을 참조하여, 사동 구문에서 한문 원문에 '令'이 나오고 24(·)이 현토되어 있으면 '-(ㅅ){令}ㅣ-'와 같이 파악하고, '令'이 나오지 않고 24(·)이 현토되어 있으면 '-ᄉㅣ-'와 같이 파악한다.

轉(ㅅ){令}ㅐ亇 能亇 自害乙 引亇 能亇 他害乙 引亇 能亇 俱害乙 引亇

D: 모든 隨眠을 모두 능히 堅固하게 하며, 等流行을 相續히 轉하게 하며, 능히 自害를 끌며, 능히 他害를 끌며, 능히 俱害를 끌며,

E: 모든 수면들로 하여금 모두가 견고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종류의 행이 서로 이어지면서 생기게 하여 자신에게 해 될 일을 끌고 남에게 해 될 일을 끌고 자기와 남에게 다같이 해 될 일을 끌며

<유가08 09:04-07>

A: 生現法罪[34(·),=55(·)]生後法罪[34(·),55(·)]生俱法罪[34(·),=55(·)]令受彼[43(·)]生[33(/)]身心憂苦[34(·),=24(·),55(·)]能[55(·)]引[역독선]生等[33(/)]種種大苦[34(·),55(·)]能[55(·)]令相續[43(·)?]{32(·)}遠[역독선]涅槃[34(·),=24(·)#23~24(·),=55(·)]樂[지시선(/)]能[55(·)]令退失[2자합부-역독선]諸勝善法[34(·),=24(·)#23~24(·),55(·)]

B: 生現法罪[乙,亇]生後法罪[乙,亇]生俱法罪[乙,亇]令受彼[ㅱ]生[ㅅㄱ]身心憂苦[乙,ㅐ,亇]能[亇]引生等[ㅅㄱ]種種大苦[乙,亇]能[亇]令相續[ㅱ]遠涅槃[乙,ㅐ,亇]樂能[亇]令退失諸勝善法[乙,ㅐ,亇]

C: 現法罪乙 生亇 後法罪乙 生亇 俱法罪乙 生亇 彼ㅱ 生ㅅㄱ 身心憂苦乙 受(ㅅ){令}ㅐ亇 能亇 生 等ㅅㄱ 種種 大苦乙 引亇 能亇 相續ㅱ 涅槃樂乙 遠(ㅅ){令}ㅐ亇 能亇 諸 勝善法乙 退失(ㅅ){令}ㅐ亇

D: 現法罪를 내며, 後法罪를 내며, 俱法罪를 내며, 그로 생긴 身心憂苦를 받게 하며, 능히 生 등의 갖가지 大苦를 끌며, 능히 相續으로 涅槃樂을 멀어지게 하며, 능히 모든 勝善法을 退失하게 하며,

E: 현재법의 죄를 내고 뒷법의 죄를 내고 현재의 법과 뒤의 법에 공통되는 법을 내어 생을 받게 하고 몸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받

게 하여 나는 따위의 갖가지 고통을 이끌며 서로 계속되어 열반의 즐거움을 멀어지게 하고 모든 훌륭하고 착한 법에서 물러나거나 잃게 하며

<유가08 09:07-10>

A: 能[55(·)]令資財[34(·)]衰損散失[=24(·)#23~24(·),55(·)]能[55(·)]令入衆[44(·),+12~13(\)#+13(\)]不[역독선]得[역독선]无畏[34(·)?,32~42(·)?[3],22(·)]悚懼无威[4][=24(·)#23~24(·),55(·)]能[55(·)]令鄙惡名稱[34(·),구결자(乙)]流布十方[=44(·),구결자(十),지시선(\)]常[24(·),=55(·),22~32(·),미상[5]]爲智者[23(·)]之所訶毁[+15~25(-)[6],34(·),32~42(·),55(·)]

B: 能[ㅁ]令資財[乙]衰損散失[ㅣ,ㅁ]能[ㅁ]令入衆[十,xㅅ]不得无畏[乙,ㅅ,ㅈ]悚懼无威[ㅣ,ㅁ]能[ㅁ]令鄙惡名稱[乙]流布十方[十]常[ㅣ,ㅁ,ㅣ]爲智者[ㅋ]之所訶毁[ノ尸,乙,ㅅ,ㅁ]

C: 能ㅁ 資財乙 衰損散失(ㄴ){令}ㅣㅁ 能ㅁ 衆十 入xㅅ 无畏乙 得(尸) 不ㅅ(ㄴ)ㅈ 悚懼无威(ㄴ){令}ㅣㅁ 能ㅁ 鄙惡名稱乙 十方十

---

3) 검은 획에 가려 있으나 이승재 이점본에 찍혀 있다. 문맥상 '不'이 능력부정과 관련 있으므로 32~42(·)/ ㅅ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4) '威'에 42(·)이 희미하게 기입되어 있고 주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곳으로부터 '无威'에 걸쳐 왼쪽으로 선이 뻗어 있다. 42(·)을 빼라는 표시 같으나 분명치 않다.

5) 사선 모양의 긴 선이 그어져 있는데, 형태는 지시선으로 의심되나 지시선이 사용될 환경이 아니어서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원래 '常'자에 현토될 22~32(·)과, '方'자에 현토될 것이 이 '常'자에 현토된 '24(·),=55(·)'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일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

6) 점토 『유가사지론』 권5·8에서 15~25(-)과 +15~25(-)은 규칙적으로 변별되어 현토된 것으로 보인다. 15~25(-)은 자토구결에서 '尸'이 쓰일 자리에 현토되어 있고, +15~25(-)은 자토구결에서 '爲'가 피동으로 해석되는 'V+ノ尸 所乙 爲ㅅ-' 구문과 '-ノ尸人 … -ノ尸人ノ尸 是 {如}ㅊㄴㄱ乙 名下-' 구문 등에서 'ノ尸'이 쓰일 자리에 현토되어 있다.

流布(ㅅ){令}ㅣㅎ 常ㅣ 智者ㅋ{之} 訶毁ㅅㄲ 所乙 爲ㅅㅎ

D: 능히 資財을 衰損散失시키며, 능히 무리에 들되 无畏를 얻지 못하여 悚懼無威하게 하며, 능히 鄙惡名稱을 十方에 流布시키며, 항상 智者의 訶毁하는 바가 되며,

E: 재물이 손해되고 흩어져 잃게 하며 대중에 들되 두려움 없음을 얻지 못하는지라 송구하게 여기어 위엄이 없게 하며 더럽고 나쁜 이름이 시방에 널리 퍼지게 하며 언제나 지혜로운 이에게 꾸지람을 받으며

<유가08 09:10-12>

A: 令臨終[+15~25(-),33(/)]時[53(·)?,44(·)]生大憂悔[34(·),=24(·)#23~24(·),55(·)]令身壞已[22(·)]墮諸惡趣[44(·),15(·)]生那落迦[42(·),=24(·),55(·)]中[44(·),지시선(/)]令不[역독선]證得[2자합부-역독선]自勝義[15~24(/),42(·)]利[34(·),32~42(·),24(·),55(·),지시선(/),경계선]如是等[33(/)]過[33(·)]无量[55(·)]無邊[52(·)[7]]

B: 令臨終[ㅅㄲ,ㅅㄱ]時[ㅗ,十]生大憂悔[乙,ㅣ,ㅎ]令身壞已[ㅋ]墮諸惡趣[十,ㅈ]生那落迦[七,ㅣ,ㅎ]中[十]令不證得自勝義[ㅅㅎ,七]利[乙,ㅅ,ㅣ,ㅎ]如是等[ㅅㄱ]過[ㄱ]无量[ㅎ]無邊[ㄴ]

C: 終ㅅㄲ 臨ㅅㄱ 時ㅗ十 大 憂悔乙 生(ㅅ){令}ㅣㅎ 身 壞(ㄲ) 已(ㅓㅅ)ㅋ 諸 惡趣十 墮(ㅋ)ㅈ 那落迦七 中十 生(ㅅ){令}ㅣㅎ 自勝義利乙 證得(ㅅㄲ) 不ㅅ(ㅅ){令}ㅣㅎㅅㅎ七 是 {如}(ㅈ) 等ㅅㄱ 過ㄱ 无量(ㅅ)ㅎ 無邊(ㅅ)ㄴ(ㅣ)

D: (목숨) 終하기를 臨한 때에 큰 憂悔가 나게 하며, 몸이 壞하고 나서 모든 惡趣에 떨어져서 那落迦의 중에 나게 하며, 自勝義利를 證得하지 못하게 하며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의 過는 无量하

7) 강독회에서 52(·)이 'ㅣ'에 대응될 수 있다는 의견과 'ㄴㅣ'에 대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며 無邊하다.

E: 목숨을 마치려 할 적에 큰 두려움과 뉘우침이 나게 하며 몸이 무너진 뒤에는 모든 나쁜 갈래에 떨어져서 나라카에 나게 하며 스스로 훌륭한 뜻의 이익을 증득하지 못하게 하나니 이와 같은 따위의 허물이야 말로 한량 없고 그지없다.

<유가08 09:13-15>

A: 云何[34(·)]業雜染[51(·),15(·.)]嗢拕南曰[8)][15~25(-)]自性[31(·)]若分別[31(·)]因[31(·)]位[31(·)]及與[42(·)]門[31(·)]增上品[31(·)]顚倒[31(·)]差別[31(·)]諸過患[31(·),51(·)]

B: 云何[乙]雜染[ㅣ,ノ𠂉口]嗢拕南曰[尸]自性[人]若分別[人]因[人]位[人]及與[七]門[人]增上品[人]顚倒[人]差別[人]諸過患[人,ㅣ]

C: {云}何乙 業雜染(刂)ㅣノ𠂉口 嗢拕南 曰尸 自性人 若 分別人 因人 位人 及 與七 門人 增上品人 顚倒人 差別人 諸 過患人(刂)ㅣ

D: 무엇을 業雜染이다 하는가? 嗢拕南으로 말하기를, 自性과 分別과 因과 位와 더불어 門과 增上品과 顚倒와 差別과 모든 過患이다.

E: 무엇을 업의 여러 염오라 하는가 우다아나로 말하리라. 제 성품과 나누어 가름과 원인과 자리와 그리고 문이며 더하여 줌의 품류와 뒤바뀜과 차별과 모든 허물이니라.

<유가08 09:16-18>

A: 當知[51(·)]業雜染[33(·)]由自性[34(·),=24(·),43(·)]故[55(·)]分別[43(·)]故[55(·)]因故[55(·)]位故[55(·)]門故[55(·)]上品故[55(·)]顚倒故差別故[55(·)]過患[43(·)]故[21(·)]解釋[33~43(·\)]應知[42(\),

8) '曰'자 왼쪽 아래에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가 두 줄로 그려져 있으나 각필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해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51(·)]

B: 當知[ㅣ]業雜染[ㄱ]由自性[乙,ᄉ,ᄆ]故[ᄀᆞ]分別[ᄆ]故[ᄀᆞ]因故[ᄀᆞ]位故[ᄀᆞ]門故[ᄀᆞ]上品故[ᄀᆞ]顚倒故差別故[ᄀᆞ]過患[ᄆ]故[ㅅ]解釋[x印]應知[ㅅᄒᆞᄂᆡ,ㅣ]

C: 當(ㅅ) 知(ᄒᆞ)ㅣ 業雜染ㄱ 自性乙 由ᄉ(ㄱ)ᄆ{故}ᄀᆞ 分別ᄆ{故}ᄀᆞ 因(ᄆ){故}ᄀᆞ 位(ᄆ){故}ᄀᆞ 門(ᄆ){故}ᄀᆞ 上品(ᄆ){故}ᄀᆞ 顚倒(ᄆ){故}(ᄀᆞ) 差別(ᄆ){故}ᄀᆞ 過患ᄆ{故}ㅅ 解釋x印 知ㅅᄒᆞ{應}ᄂᆡㅣ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業雜染은 自性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分別 때문이며, 因 때문이며, 位 때문이며, 門 때문이며, 上品 때문이며, 顚倒 때문이며, 差別 때문이며, 過患 때문에 解釋하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 알아야 하리라. 업의 여러 염오라 함은 제 성품 때문이요, 나누어 가름 때문이요, 원인 때문이요, 자리 때문이요, 문 때문이요, 더하여 줌의 품류 때문이요, 뒤바뀜 때문이요, 차별 때문이요, 허물 때문인 것이니, 그를 풀이하는 줄 알아야 한다.

<유가08 09:18-20>

A: 業自性云何[11~21(-),+15(·)]謂[33(·)]若法[22~32(·)]生[15~24(/),42(·)]時[53(·),44(·)]造作相[=22~32(·),3자합부]起[55(·)]及由彼[22~32(·)]生[+45(/)#+35(/),=24(·),43(·)]故[21(·)]身行[53(·)?][9]語行[53(·),15(·\)[10]]於彼後[42(·)]時[53(·),44(·)]造作[22(·)]

9) 53(·)이 뚜렷하지 않으나 이승재 이점본에 찍혀 있고, 문맥상 있어야 자연스럽다.

10) 자토구결에서 접속조사 '-ㅗ(=ㅅ)'로 나열되는 명사구가 주어에 해당할 경우 ①'-ㅗ … -ㅗㄴᄒᆞ', ②'-ㅗ … -ㅗㄴᄆᆞㄱ', ③'-ㅗ … -ㅗㄴᄉᆞㄱ'과 같이 현토된다. 따라서 15(·\)은 이들 중에 하나와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而[43(·)]轉[+45(/)]是[34(·)]名[54(·)]業自性[53(·),+51(·.)]

B: 業自性云何[ㅌ,ㅁ]謂[ㄱ]若法[ㅣ]生[ㅅ仝,ㄴ]時[ㅗ,十]造作相[ㅣ]起[ㅀ]及由彼[ㅣ]生[x入乙,ㅔ,ㅠ]故[ノ]身行[ㅗ]語行[ㅗ,X]於彼後[ㄴ]時[ㅗ,十]造作[ㅋ]而[ㅠ]轉[x入乙]是[乙]名[下]業自性[ㅗ,xㅣ]

C: 業自性 {云}何(ㅅ)ㅌㅁ 謂ㄱ 若 法ㅣ 生ㅅ仝ㄴ 時ㅗ十 造作相ㅣ 起ㅀ 及 彼ㅣ 生x入乙 由ㅔ(ㄱ)ㅠ{故}ノ 身行ㅗ 語行ㅗX {於}彼後ㄴ 時ㅗ十 造作(ㅅ)ㅋ 而ㅠ 轉x入乙 是乙 名下 業自性ㅗxㅣ

D: 業自性은 무엇인가? 즉 만약 法이 날 때에 造作相이 일어나며, 그것이 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身行이니 語行이니 하는 것이 그 뒤의 때에 造作하여 轉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業自性이라고 한다.

E: 업의 제성품이라 함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 법이 생길 때에는 짓는 모양이 일어나며 그것이 남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과 말의 행이 그 다음의 때에 지어지면서 생기게 되나니 이를 업의 제성품이라 한다.

<유가08 09:21-23>

A: 業分別云何[11~21(-),+15(·)]謂由二種相[34(·),24(·),33~43(/)]應知[42(\),51(·)]一由補特伽羅相差別[44~45(/),24(·),43(·)]故[55(·)]二由法相差別[34(·),24(·),43(·)]故[53(·)]此[33(·)]復二種[33~43(·),53(·)]卽善[31(·)]不善[31(·),42(·)]十種業道[51(·)]

B: 業分別云何[ㅌ,ㅁ]謂由二種相[乙,ㅔ,ㅅㄱ 卬]應知[ノ亇ㄴ,ㅣ]一由補特伽羅相差別[x入乙,ㅔ,ㅠ]故[ㅀ]二由法相差別[乙,ㅔ,ㅠ]故[ㅗ]此[ㄱ]復二種[卬,ㅗ]卽善[人]不善[人,ㄴ]十種業道[ㅣ]

C: 業分別 {云}何(ㅅ)ㅌㅁ 謂 二種 相乙 由ㅔㅅㄱ 卬 知ノ亇{應}ㄴ ㅣ 一 補特伽羅相差別x入乙 由ㅔ(ㄱ)ㅠ{故}ㅀ 二 法相差別乙 由ㅔ(ㄱ)ㅠ{故}ㅗ 此ㄱ 復 二種卬ㅗ 卽 善人 不善人ㄴ 十種 業

道(ㅢ)ㅣ

D: 業分別은 무엇인가? 즉 두 가지 相을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 補特伽羅相差別하는 것을 말미암은 까닭이며, 둘째 法相差別을 말미암은 까닭이다. 이는 또 두 가지이니 곧 善과 不善의 열 가지 業道이다.

E: 업의 나누어 가름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모양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알아야 하리니, 첫째는 푸드갈라 모양의 차별로 말미암아서요 둘째는 법 모양의 차별로 말미암아서이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이니 곧 착함과 착하지 못한 것의 열 가지 업길이다.

<유가08 09:23-10:05>

A: 所[33(·)]謂[33(\),지시선(/)]殺生[31(·)]離殺生[31(·)]不與取[31(·)?]離不與取[31(·)]欲邪行[31(·)]離欲[31(·)][11]邪行妄語[31(·)]離妄語[31(·)]離閒語[31(·)]離離閒語[31(·)]麤惡語[31(·)]離麤惡語[31(·)]綺語[31(·)]離綺語[31(·)]貪欲[31(·)]離貪欲[31(·)]瞋恚[31(·)]離瞋恚[31(·)]邪見[31(·)]離邪見[=31(·),51(·)]

B: 所[ㄱ]謂[ㄴㄱ]殺生[ㅅ]離殺生[ㅅ]不與取[ㅅ]離不與取[ㅅ]欲邪行[ㅅ]離欲[ㅅ]邪行妄語[ㅅ]離妄語[ㅅ]離閒語[ㅅ]離離閒語[ㅅ]麤惡語[ㅅ]離麤惡語[ㅅ]綺語[ㅅ]離綺語[ㅅ]貪欲[ㅅ]離貪欲[ㅅ]瞋恚[ㅅ]離瞋恚[ㅅ]邪見[ㅅ]離邪見[ㅅ,ㅣ]

C: 謂ㄴㄱ 所ㄱ 殺生ㅅ 離殺生ㅅ 不與取ㅅ 離不與取ㅅ 欲邪行ㅅ 離欲邪行ㅅ 妄語ㅅ 離妄語ㅅ 離閒語ㅅ 離離閒語ㅅ 麤惡語ㅅ 離麤惡語ㅅ 綺語ㅅ 離綺語ㅅ 貪欲ㅅ 離貪欲ㅅ 瞋恚ㅅ 離瞋恚ㅅ 邪見ㅅ 離邪見ㅅ(ㅢ)ㅣ

D: 즉 殺生과 離殺生과 不與取와 離不與取와 欲邪行과 離欲邪行

11) 이 점토는 뒤의 "邪行"의 '行'자에 현토되어야 할 점토가 현토자의 실수로 잘못 현토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 妄語와 離妄語와 離間語와 離離間語와 麤惡語와 離麤惡語와 綺語와 離綺語와 貪欲과 離貪欲과 瞋恚와 離瞋恚와 邪見과 離邪見이다.

E: 이른바 산 목숨 죽이는 것과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며, 주지 않는 데 가지는 것과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이며, 음욕의 사뙨 행과 음욕의 사뙨 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거짓말과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이간질의 말과 이간질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추악한 말과 추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비단말과 비단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탐냄과 탐내지 않는 것이며, 성냄과 성내지 않는 것이며, 사뙨 소견과 사뙨 행을 않는 것이다.

<유가08 10:05-06>

A: 補特伽羅相差別建立[51(·)]者[23~33(·)]謂如經[44(·)]言[33(··),11(·),51(·)]諸殺生者[53(·),55(·)]乃至[22~32(·)?]廣[22~32(·)]說[+51(·)]

B: 補特伽羅相差別建立[ㅣ]者[ㅅㄱ]謂如經[十]言[X,ㅊ,ㅣ]諸殺生者[ㅗ,ㅀ]乃至[ㅐ]廣[ㅐ]說[xㅣ]

C: 補特伽羅相差別建立(ㅐ)ㅣ{者}(ㅅㄱ)ㅅㄱ 謂 經十 言X {如}ㅊ(ㅅ)ㅣ 諸 殺生者ㅗ(ㅅ)ㅀ 乃 至ㅐ 廣ㅐ 說xㅣ

D: 補特伽羅相差別建立이다 하는 것은, 즉 經에서 말씀한 것과 같다. "모든 殺生者"라고 하며 내지 자세한 설명이다.

E: 푸드갈라 모양의 차별을 세움이라 함은 경전에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 산 목숨을 죽임이라 함은'에서부터 이에 자세한 설명까지이다.

<유가08 10:06-07>

A: 殺生者[51(·)]者[23~33(··)]此[33(·)]是[33(·)]공捻句[22~32(·),55(·),2자합부]

B: 殺生者[ㅣ]者[x入ㄱ]此[ㄱ]是[ㄱ]捻句[ㅢ,分]
C: 殺生者(ㅢ)ㅣ{者}x入ㄱ 此ㄱ 是ㄱ 捻句ㅢ分
D: 殺生者이다 하는 것은, 이는 捻句이며,
E: 산 목숨을 죽이는 이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0:07-08>
A: 甚極暴惡[51(·)]者[23~33(··)]謂殺害心[22~32(·)]正[42(·)]現前[43(ㅣ)]故[55(·)]
B: 甚極暴惡[ㅣ]者[x入ㄱ]謂殺害心[ㅢ]正[ㄴ]現前[x入ᄆ]故[分]
C: 甚極暴惡(ㅢ)ㅣ{者}x入ㄱ 謂 殺害心ㅢ 正ㄴ 現前x入ᄆ{故}分
D: 甚極暴惡이다 하는 것은, 즉 殺害心이 바로 現前한 까닭이며,
E: 가장 성질이 사납고 악하다 함은 살해하려는 마음이 바로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며

<유가08 10:08-09>
A: 血塗其手[51(·)]者[23~33(··)]謂[33(·)]爲成殺[+45(\),31(·),22(·),삐침선(22~32,\)]身[33(·)]相[22~32(·)]變[43(ㅣ)]故[55(·)]
B: 血塗其手[ㅣ]者[x入ㄱ]謂[ㄱ]爲成殺[x入乙,人,ㅈ]身[ㄱ]相[ㅢ]變[x入ᄆ]故[分]
C: 血塗其手(ㅢ)ㅣ{者}x入ㄱ 謂ㄱ 殺x入乙 成(ㄴ){爲}人(ㄴ)ㅈ 身ㄱ 相ㅢ 變x入ᄆ{故}分
D: 血塗其手이다 하는 것은, 즉 殺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여 몸은 相이 변한 까닭이며,
E: 피를 그 손에 발랐다 함은 죽였을 적에 몸의 모양이 변하였기 때문이며

<유가08 10:09-10>

A: 害極害執[51(·),4자합부]者[23~33(··)]謂斷[역독선]彼命[34(·),43(ㅣ)?]故[55(·)]解支節[34(·),=24(·)#23~24(·),43(ㅣ)]故[55(·)]計活命[34(·),43(ㅣ)]故[55(·)]

B: 害極害執[ㅣ]者[xㅅㄱ]謂斷彼命[乙,xㅅ灬]故[ㅁ]解支節[乙,ㅇㅛ,xㅅ灬]故[ㅁ]計活命[乙,xㅅ灬]故[ㅁ]

C: 害極害執(ㅛ)ㅣ{者}xㅅㄱ 謂 彼 命乙 斷xㅅ灬{故}ㅁ 支節乙 解ㅇㅛxㅅ灬{故}ㅁ 活命乙 計xㅅ灬{故}ㅁ

D: 害極害執이다 하는 것은, 즉 그의 命을 斷한 까닭이며, 支節을 解하게 한 까닭이며, 活命을 計한 까닭이며,

E: 해침의 극진함과 해침의 집념이라 함은 그의 목숨을 끊기 때문이고 뼈 마디를 베기 때문이고 목숨 살기를 꾀하기 때문이며

<유가08 10:10-11>

A: 无有羞恥[51(·),4자합부?]者[23~33(··)]{33(·)}謂{지시선(/)?}[12]自[23(·)]罪[22~32(·)]生[43(ㅣ)]故[55(·)]

B: 无有羞耻[ㅣ]者[xㅅㄱ]謂自[ㅋ]罪[ㅛ]生[xㅅ灬]故[ㅁ]

C: 无有羞耻(ㅛ)ㅣ{者}xㅅㄱ 謂 自ㅋ 罪ㅛ 生xㅅ灬{故}ㅁ

D: 无有羞耻이다 하는 것은, 즉 자기의 죄가 생긴 까닭이며,

E: 부끄러움이 없다 함은 스스로 죄가 생기기 때문이며

<유가08 10:11>

A: 无有哀愍[51(·)]者[23~33(··)]謂引[역독선]彼非愛[34(·),43(ㅣ)]故[51(·)]

B: 无有哀愍[ㅣ]者[xㅅㄱ]謂引彼非愛[乙,xㅅ灬]故[ㅣ]

C: 无有哀愍(ㅛ)ㅣ{者}xㅅㄱ 謂 彼 非愛乙 引xㅅ灬{故}ㅣ

12) '謂'자에 지시선(/)을 현토하고 '者'자에 33(·)을 기입할 이유가 없는데 이와 같이 현토되어 있어서 이들을 { }로 처리했다.

D: 无有哀愍이다 하는 것은, 즉 그의 非愛를 이끈 까닭이다.

E: 가엾이 여김이 없다 함은 그의 사랑스럽지 않는 것을 이끌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57-77쪽.

南豊鉉(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5-45쪽.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쪽.

박진호(2003),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에서 11위치의 單點에 대응되는 字吐」,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제24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123-136쪽.

徐民旭(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중심으로-」, 제29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윤행순(2000), 「일본의 오코토점과 한국의 초조대장경에서 보이는 부호구결의 비교」,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자료.

李丞宰(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59-69쪽.

李丞宰(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쪽.

李丞宰(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珥光鎬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229-250쪽.

李丞宰·安孝卿(2002ㄱ),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115-145쪽.

장경준(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2002년 2월 23일 구

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 원고.

장경준(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205-225쪽.

장경준(2002ㄷ),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5-30쪽.

장경준(2003ㄱ),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227-247쪽.

장경준(2003ㄴ),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指示線'에 대하여」, 日韓漢字·漢文受容硏究會 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도야마대학). 169-177쪽.

장경준(2003ㄷ),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口訣學會. 111-121쪽.

장경준(2004),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30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31-143쪽.

〔157-884 서울시 강서구 화곡7동 366-61호 13/1〕
E-mail: minuk@catholic.ac.kr
접수일자: 2004. 10. 15.
게재결정: 2005. 1. 29.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08:22-10:11-

Seo, Minuk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history on Buddhism and the overal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preached by Maitreya(彌勒) and written by Asaṅga(無著), and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the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釋讀口訣)